

# 기름값 '뚝뚝'... 1200원대 진입 눈앞

광주 0당 평균 1419.45원·전남 1440.79원

최저가, 광산구 진양 1349원·보성 열가게 1322원

국제유가 10년새 최저치...시중가 반영은 더더

국제 유가가 배럴당 35달러까지 주저앉으며 광주·전남지역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다. 보성 열가게주유소의 기름값이 1322원(이하 휘발유 0.5당)으로 12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지역도 많다.

반면,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시중 기름값 하락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 번 오른 시중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38.94원을 기록 중이다. 1주일 전 1450원과 비교해 리터당 11.06원 하락했다.

광주지역도 평균 1419.45원, 전남도 1440.79원으로 1300원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미 1300원대를 기록한 주유소도 있다. 최저 가격은 광산구 진양주유소 1349원, 전남은 보성 열가게주유소 1322원이었다.

광주의 지역별 최저가격 주유소는 동구의 경우, (주)더그린주유소(1393원), (주)반디석유산수점(1395원), 신계림주유소(1395원) 등이었다.

남구도 새롬주유소(1360원), (주)원흥광주지점(1367원), 아이에스오일(주)골드주유소(1367원), 드림주유소(1373원), 주식회사사은누리주유소(1373원) 등이 1300원대에 기름을 팔고 있다.

또 광산구에서는 평동제일주유소(1349원), 진양주유소(1349원), 농협하나로주유소(1358원), (주)대원 평동우리주유소(1359원), 서구는 우리셀프주유소(1373원), 풍암대림주유소(1375원) 등이 최저가

주유소였다. 북구에서는 스피드주유소(1383원), 북성주유소(1385원) 등이 싸게 기름을 팔았다.

전남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진 1408원~1490원 ▲고흥 1435원~1535원 ▲곡성 1358원~1499원 ▲광양 1359원~1499원 ▲구례 1390원~1518원 ▲나주 1359원 1509원 ▲담양 1379원~1790원 ▲목포 1395원~1550원 ▲무안 1379원~1499원 ▲보성 1322원~1499원 ▲순천 1352원~1510원 ▲신안 1445원~1590원 ▲여수 1379원~1538원대에 기름이 거래됐다.

또 ▲영광 1385원~1495원 ▲영암 1369원~1580원 ▲완도 1460원~1700원 ▲장성 1354원~1499원 ▲장흥 1448원~1490원 ▲진도 1490원~1590원 ▲함평 1360원~1499원 ▲해남 1397원~1499원 ▲화순 1387원~1550원 선을 유지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기름값이 하락세인 것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16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10% 떨어진 배럴당 35.62달러로 마감했다.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전국 최저가 주유소는 지난해 연말과 마찬가지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 상평주유소로 조사됐다. 상평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295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당시보다 10%가량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비슷했던 2005년 1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30달러대로 떨어지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속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1300원대 주유소는 1400여개나 늘었다. /연합뉴스

1330.94원으로 국제유가가 비슷한 두 시점의 가격 차이는 112원, 8%다. 올해 국제유가가 가장 비쌌던 날(5월 6일, 65.63달러)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1517.43원이었다.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 휘발유가격은 불과 75.1원, 5%밖에 떨어지지 않은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금호그룹-금호석화 각자 길로

대법 분리 확정 판결...금호아시아나서 8개사 제외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박삼구-전구 형제의 회사들을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앞서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플렉스,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

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로 고는 쓰지 않는 점, 사육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만을 겪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 美 여행전문지 최우수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 소피텔 호텔에서 현지 유명 여행전문지인 '프리미어 트래블러'(Premier Traveler)가 수여한 최우수 항공사 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미어 트래블러는 구독자를 대

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항공·여행·호텔 각 부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우수 항공사' 상 이외에 '세계 최고 승무원'과 '세계 최고 기내서비스' 등 총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또...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올해만 3번째...3월 이전보다 총 1%P 떨어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에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변동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에만 3번 인하됐다. 이번 인하된 것까지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포인트나 떨어졌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0 19 29 32 42 3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10,570,563	1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893,894	44
3 5개 숫자일치	1,385,739	1,870
4 4개 숫자일치	50,000	86,441
5 3개 숫자일치	5,000	1,413,980

# 스마트 공장 구축 노하우 전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7일 지원 사업 설명회

광주 중소·벤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의 올해 성과보고회와 내년도 사업 설명회가 오는 17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지역사회의 더욱 많은 기업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컨설팅·시스템 구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광주지역 자동차업종 20개사와 비자동차업종 20개사 등 총 40개사를 선정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공정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가입 40만 돌파

후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일까지 이 할인제도 가입자가 400만2969명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도입 약 1년 만인 지난 9월 중순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갑절로 늘었다. 최근 들

어 이 할인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당초 제도 도입 때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할인을 상향조정 뒤 가입한 사람은 382만7096명으로, 하루 평균 1만6640명씩 가입한 셈이다. 이는 할인이 12%였을 때 하루 평균 가입자(858명)의 19.4배 수준이다.

또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가입자는 2만6098명이었다.

/연합뉴스

##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